

## 토네이도? ‘모기떼!’



▲ 토네이도를 연상시키는 모기떼.  
사진=유튜브(news.com.au) 캡처

토네이도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모기떼가 포착돼 화제다.

최근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아르헨티나 휴양지인 파나마르 인근에서 마치 토네이도와 같은 검은 기둥이 하늘로 이어졌다. 당시 근처를 지나던 운전자들은 기둥의 정체를 토네이도라고 여겼지만, 정체는 다름 아닌 모기떼였다.

전문가들은 “폭우로 인해 홍수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암컷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거대한 물웅덩이가 만들어졌다.”면서 “이러한 현상이 도시를 침략하는 엄청난 수의 모기떼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토네이도처럼 거대한 무리를 형성한 모기떼가 인간에게 위협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농작물 피해는 예상된다.”고 우려하며 “일반적으로 모기는 알에서 나온 뒤 15일 후면 죽기 때문에 당장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15일 이후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살충 작업을 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훈증 등을 통한 살충 조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해당 지역 당국은 “훈증은 다른 곤충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먹이사슬을 파괴할 수 있어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라며 “방충제를 사용하고, 창문에 모기장을 설치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양육권 박탈 당한 69세 쌍둥이 출산모

스페인의 한 여성이 4년 전 출산한 쌍둥이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했다.

마우리치아 이바네즈(69)는 2017년, 노령임에도 미국에서 시험관시술로 임신에 성공한 뒤, 임신 4개월째에 고국인 스페인으로 돌아와 출산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법원으로부터 자녀들을 돌보기에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바네즈는 만 58세였던 2014년에도 첫 딸을 낳았지만 잘 돌보지 않는다며 소송에 휘말려 결국 양육권을 상실했다. 그 딸은 현재 캐나다에 있는 친척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쌍둥이를 출산한 이 여성에게 법원은 “첫 양육 소홀로 양육권을 박탈당했다.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하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쌍둥이 자녀를 위탁가정에 맡길 것을 명령했다.

이바네즈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4년 동안 쌍둥이는 양부모와 함께 생활해야 했다.



▲ 4년 전 쌍둥이를 출산했을 당시의 이바네즈.  
사진=유튜브(HL Daily News) 캡처

지난 1일 스페인 대법원은 이 여성이 쌍둥이를 양육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측은 이번 결정이 여성의 연령이나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닌, 양육과 관련한 전문가의 평가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바네즈는 현지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법원에 결정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파나마, 트랜스젠더도 미인대회 참가 허용

파나마가 트랜스젠더에게 미인대회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스파나마 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 올해부터 미인대회의 문호를 트랜스젠더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파나마공화국의 법령, 미스유니버스의 규정 등을 엄격하게 따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여자인 사람은 누구나 미인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자로 변신하고, 법적으로도 성전환을 마무리한 경우라면 누구나 미인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직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평등과 존중, 전통문화



▲ 지난해 미스 유니버스 파나마로 뽑힌 카르멘 자라 밀로.  
사진=유튜브(Roberto Carlos Jr.) 캡처

에 대한 사랑, 파나마 여성의 권리 등 소중한 가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나마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파나마에 성소수자(LGBT) 인권과 관련해 파나마에 “중미의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파나마 LGBT 사회는 “팬데믹을 이유로 LGBT의 모임이 금지되고, 출입을 금지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원회는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의 미인대회 참가를 허용하기로 한 건 법령과 국제기관들과 맺은 협약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